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의식과 안전관리활동

박소정¹, 최은희^{2*}, 이경수³, 정귀애⁴

¹영남대학교 영천병원 간호과, ²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³영남대학교 병원 예방의학과, ⁴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A Study on Perception and Nursing Activity for Patient Safety of Operating Room Nurses

So-Jeong Park¹, Eun-Hee Choi^{2*}, Kyeong-Soo Lee³, Kwi-Ae Chung⁴

¹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Yeongcheon Hospital

²School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³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⁴School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인식과 안전관리활동을 분석한 후 상관관계를 파악한 연구이다. 목적은 수술환자의 안전관리활동 수행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한 수술실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소재한 8개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 161명이었고, 자료 분석은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인식 점수는 5점 만점에 3.33점이었으며, 환자안전관리활동 점수는 5점 만점에 4.28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근무특성에 따른 환자안전인식을 분석한 결과 수술실 간호사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환자안전인식이 차이가 있었으며 안전관리활동은 병상 수와 인증평가 준비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관리활동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환자안전인식이 높을수록 안전관리활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전관리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직원 간의 개방적인 논의와 환자안전에 대한 병원의 지원 및 주기적인 교육과 같은 중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performance of safety in operating room nurses. There were 161 operating room nurses from eight general hospitals included for analysis in this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Scheffe's test. The results show that their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was 3.33 out of a total of 5 points. Moreover, the score of safety management activity for patients in the operating room was 4.28 out of 5 points. As the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in operating room nurse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ir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nurses with higher awareness of patient safety were found to have higher degree of performance of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In conclusion, to improve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pen discussion about patient safety should be encouraged and periodic education regarding patient safety should be implemented for operating room nurses to increase the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Keywords : Nursing activity, Operating room, Patient, Perception, Safety

1. 서론

환자안전이란 의료과실이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고 손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환자가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

1.1 연구 필요성

본 논문은 박소정의 석사논문임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Choi(Yeungnam University College)

Tel: +82-53-650-9388 email: eh5472@ync.ac.kr

Received August 9, 2016

Revised (1st September 19, 2016, 2nd October 13, 2016)

Accepted November 10, 2016

Published November 30, 2016

이 포함된다[1].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다[2]. 그러므로 의료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한 분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에서는 2010년 11월부터 의료법 제 58조 3, 제 1항에 근거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인증에서 환자안전은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가치체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환자 안전보장 활동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3].

환자안전에 대한 국내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상황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럼에서 ‘2009년 입원환자 5,357,000 명 중 진료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비율이 9.2%였으며, 이 중 43.5%는 예방 가능한 사고’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해 발생 환자 중 사망률은 7.4%로 연간 36,000 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4]. 환자안전사고는 기관 홍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루거나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적인 파악이 어렵다. 그러므로 환자안전사고 내용에 대한 의료기관 간 공유와 예방을 위한 피드백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내 오류를 범한 사람을 비난하고 불이익을 주는 조직 문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은 실제로 과소보고 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사고를 발견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5].

미국의 경우, 국립 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 IOM)의 보고서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사망자수가 연간 44,000-98,000 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이후[6] 의료기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The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JCAHO)을 중심으로 환자안전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국가보건시스템의 주요 분야로 환자안전을 검토하였으며, 2001년 국가환자안전청(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NPSA)을 설립하여 환자 안전관리 문제를 규명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는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8]. 국내에서는 2005년 JCAHO 시스템의 ‘환자안전 및 치료 개선법’을 입법화하여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8].

이 중 수술환자는 수술진행과정과 수술 후 회복을 거치는 동안 자기 방어능력 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되므로[9] 수술환자의 안전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Safe Surgery, Saves Lives’라는

슬로건으로 WHO에서는 수술환자 사망과 합병증 감소를 위해 ‘WHO Surgical Safety Checklist’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10]. 이는 수술환자 안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증대시켰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의 보고[11]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에 접수된 전체 761건 중 수술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이 333건 (43.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구제 신청 내용이 수술실의 환자안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수술실에서의 의료사고가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술실 안전에 대한 관리가 매우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수술실 간호사의 인식확인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와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병원간호사의 안전관리활동 영향요인 연구[2], 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와 안전간호활동에 관한 연구[12-16], 중환자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환자안전문화와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연구[17]가 수행되었으나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수술실에서 환자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이는 자기 방어능력이 저하된 수술실 환자의 환자안전관리활동이 강화되었음에도[9] 불구하고 수술실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관리활동 정도를 파악한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과 수술환자 안전관리활동 수행 정도를 분석하여 안전한 수술실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수술실 간호사들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활동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D 광역시와 K도에 소재한 병원 중 의료법에 근거하여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 인증평가를 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는 8개 병원의 수술실 간호사

중 연구에 동의한 자이다. 표본수는 G-power 3.1.7 program[18]에서 두 요인의 상관관계연구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80, 검정력 .90으로 했을 때[19] 최소 132부가 필요했다. 본 연구에서는 8개 병원에 배부한 총 176부의 설문지 중에서 166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61부를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조건을 충족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12월 21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하였으며, 연구자가 수술실을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한 뒤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환자안전인식

미국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가 개발한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20]와 의료기관평가지침서[21]를 근거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수술실 간호사 7인이 검토하여 내용타당도 지수(CVI)가 .8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였다[22]. 설문문항은 병원환경에 대한 설문 4문항, 부서 근무환경에 대한 설문 11문항, 의사소통과 절차에 대한 설문 5문항, 직속 상급자/관리자 태도에 대한 설문 4문항, 부서의 환자 안전도에 대한 설문 1문항 등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낮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매우 높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부정으로 묻는 문항은 통계 처리 시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 .82$ 이었으며, 하부영역별로는 .78에서 .88이었다. 부서의 환자 안전도는 1문항 설문이었으므로 신뢰도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2.3.2 환자안전관리활동

의료기관평가지침서[21], 의료기관 인증기준집[3]과 수술간호사회 수술간호표준지침을 근거로 하여 설문을 작성하였고, 환자안전인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술실 근무경력 15년 이상의 간호사 7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지수(CVI)가 .8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였다[22]. 설문문항은 낙상 관련 4문항, 정확한 환자 확인 관련 5문항, 피부상태 관련 4문항, 화재 관련 5문항, 정확한 계수 관련 6문항, 투약 관련 5문항 등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의 점수는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1점에서 ‘항상

수행 한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관리활동 수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는 Chronbach $\alpha = .88$ 이었으며, 하부영역별로는 .81에서 .92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과 환자안전관리활동은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안전인식과 안전관리활동과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으로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수술실 간호사들의 연구 참여는 연구자가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시행되었다. 이 후 연구자가 수술실에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보장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강조하였다.

2.6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D 광역시와 K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8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근무 특성

수술실 간호사들은 40대 미만이 전체의 82%이었으며 결혼은 56.5%가 미혼이었다. 학력은 학사 이상이 전체의 30.5%로 나타났으며 500병상 이상이 전체의 64%이었다. 수술실 총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이 47.8%로 가장 많았으며 책임간호사 이상이 10.6%이고 나머지가 간호사이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 이상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에 대한 교육은 1-3회가 전체의 55.9%이었다.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기관이 전체의 46%를 차지하였다.

Table 1. General and working characteristics

(n=161)

Characteristics		n	%
Age(yr)	20-29	91	56.5
	30-39	41	25.5
	40≤	29	18.0
Marriage	Yes	70	43.5
	No	91	56.5
Education	Diploma	112	69.5
	Bachelor	41	25.5
	Over than graduate school	8	5.0
Beds(n)	≤ 500	58	36.0
	500-599	29	18.0
	600 ≤	74	46.0
Employ history in operating room(yr)	<5	77	47.8
	5-9	33	20.5
	10-14	18	11.2
	15<	33	20.5
Position	Nurse	144	89.4
	charge nurse/head nurse	17	10.6
Working hour(hr)	40-44	56	34.8
	45-49	48	29.8
	50≤	57	35.4
Education for safety(n)	1-3	90	55.9
	4-6	38	23.6
	7-10	12	7.5
Preparation for Accreditation	12	21	13.0
	Yes	74	46.0
	No	87	54.0

3.2 환자안전인식과 안전관리활동

환자안전인식의 총 평균평점은 3.33(±0.39)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병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3.7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병동 환경이 3.15점으로 가장 낮았다. 안전관리활동의 총 평균평점은 4.28(±0.46)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 낙상이 4.5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화재가 3.9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Perception and nursing activity (n=161)

Characteristics		M±SD
Perception	Hospital environment	3.76±0.51
	Ward environment	3.15±0.44
	Communication and process	3.43±0.48
	Attitude of superior	3.23±0.51
	Patient safety degree in ward	3.45±0.65
Total		3.33±0.39
Nursing activity	Fall down	4.52±0.48
	Identify patient	4.21±0.57
	Skin check	4.34±0.58
	Fire	3.92±0.64
	Correct count	4.40±0.57
	Activity	4.33±0.68
Total		4.28±0.46

3.3 일반적 특성 및 근무특성별 환자안전인식

환자안전인식은 주당근무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F=4.66, p=.011). 하부영역별로는 평균 근무시간이 40-44시간이 3.35(±0.38)점, 45-49시간은 3.44(±0.33)점, 50시간 이상은 3.21(±0.42)점으로 45-49시간 근무하는 간호사의 환자안전인식이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Perception according to general and working characteristics (n=161)

Characteristics		Perception M±SD	F or t	p	post-hoc
Age(yr)	20-29	3.33±0.36	2.86	.060	
	30-39	3.25±0.42			
	40≤	3.25±0.42			
Marriage	Yes	3.35±0.40	0.73	.464	
	No	3.30±0.39			
Education	Diploma	3.33±0.41	0.01	.991	
	Bachelor	3.33±0.33			
	Over than graduate school	3.31±0.55			
Beds(n)	≤ 500	3.36±0.35	0.98	.378	
	500-599	3.38±0.36			
	600 ≤	3.28±0.44			
Employ history in operating room(yr)	<5	3.34±0.35	1.81	.147	
	5-9	3.19±0.41			
	10-14	3.39±0.44			
	15<	3.40±0.42			
Position	Nurse	3.31±0.39	1.94	.054	
	Charge nurse/head nurse	3.50±0.41			
Working time(h)	40-44 ^{a)}	3.35±0.38	4.66	.011	b>c
	45-49 ^{b)}	3.44±0.33			
	50≤ ^{c)}	3.21±0.42			
Education for safety(n)	1-3	3.32±0.38	1.26	.290	
	4-6	3.29±0.46			
	7-10	3.54±0.38			
Preparation for Accreditation	12	3.32±0.40	1.40	.171	
	Yes	3.28±0.44			
	No	3.37±0.35			

3.4 일반적 특성 및 근무특성별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활동은 병상수(F=4.25, p=.016)와 인증평가 준비 여부(t=2.22, p=.02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부영역별로는 병상 수가 500병상 미만인 경우 4.27(±0.46)점, 500-599병상은 4.08(±0.51)점, 600병상 이상은 4.37(±0.42)점으로 500-599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안전관리활동이 500병상 미만이나 600병상 이상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인증평가를 준비 하고 있는 경우 4.37(±0.42)점,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4.21(±0.48)점으로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병원의 간호사의 안전관리활동이 높았다.

Table 4. Nursing activity according to general and working characteristics (n=161)

Characteristics		Nursing activity M±SD	F or t	p	post-hoc
Age(yr)	20-29	4.25±0.45	0.65	.522	
	30-39	4.29±0.49			
	40≤	4.38±0.44			
Marriage	Yes	4.27±0.45	0.40	.692	
	No	4.30±0.47			
Education	Diploma	4.30±0.45	0.78	.461	
	Bachelor	4.21±0.47			
	Over than graduate school	4.35±0.48			
Beds(n)	≤ 500 ^{a)}	4.27±0.46	4.25	.016	a<c
	500-599 ^{b)}	4.08±0.51			
	600 ≤ ^{c)}	4.37±0.42			
Employ history in operating room(yr)	<5	4.25±0.47	1.47	.225	
	5-9	4.20±0.42			
	10-14	4.44±0.49			
	15<	4.35±0.42			
Position	Nurse	4.27±0.46	0.54	.588	
	Charge nurse/head nurse	4.34±0.44			
Working time(h)	40-44 ^{a)}	4.26±0.47	0.14	.867	
	45-49 ^{b)}	4.31±0.44			
	50 ≤ ^{c)}	4.28±0.47			
Education for safety(n)	1-3	4.22±0.44	2.41	.069	
	4-6	4.27±0.46			
	7-10	4.53±0.31			
Preparation for Accreditation	12	4.42±0.56	2.22	.028	
	Yes	4.37±0.42			
	No	4.21±0.48			

3.5 환자안전인식과 안전관리활동과의 관계

Table 5. Corelation between perception and nursing activity (n=161)

Perception	Nursing activity						
	Fall down	Identify patient	Skin check	Fire	Correct count	Medi-cation	Total
Hospital environment	.31**	.29**	.22**	.21**	.14	.03	.24**
Ward environment	.21**	.29**	.24**	.23**	.11	.06	.23**
Communication and process	.19*	.26**	.27**	.32**	.22**	.13	.30**
Attitude of superior	.24**	.15	.30**	.29**	.13	.15	.26**
Patient safety degree in ward	.24**	.18*	.13	.23**	.08	.04	.18*
Total	.28**	.31**	.30**	.31**	.17*	.10	.30**

*p<.05, **p<.01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관리활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의 하

위영역인 병원환경(r=.24, p<.01), 부서 근무환경(r=.23, p<.01), 의사소통과 절차(r=.30, p<.01), 직속상급자/관리자 태도(r=.26, p<.01), 부서환자 안전도(r=.18, p<.05)에 대한 인식 점수와 안전관리활동 점수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인식총점과 활동총점 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r=.30, p<.01)를 보였다.

4. 논의

환자안전은 최근 떠오르는 중요한 개념으로 병원 의료인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의사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거나[23] 병원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도[24]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일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그 제한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8개 종합병원으로 연구기관을 확대하였으며 환자안전이 강조되는 수술실 간호사로 그 대상자를 구체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술실 간호사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33점으로 Kim[25]의 연구에서의 인식 평균 3.08점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비슷한 수준인 ‘보통이다’(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확한 긍정인 ‘그렇다’(4점)를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수술실 간호사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에 기반을 둔 병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근무 특성 중에서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간호사가 40-44시간과 45-49시간인 간호사에 비해 환자안전 인식 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병원간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Kim[2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근무시간이 주당 45시간 미만인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주당 근무시간 45시간 이상인 간호사보다 높았다는 선행논문들[12-14]의 연구 보고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즉, 적정시간 이상의 근무는 결국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안전사고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증평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인증 평가 준비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간호사들의 기대가 높아져 인식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실제로 수행하는 환자안전

관리활동 점수가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경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인증평가가 환자안전관리활동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수술실 간호사들의 환자안전인식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병원환경이 3.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 3.2점 대[12-15] 보다 높아 수술실 간호사들의 안전에 관한 병원환경 인식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환자안전인식 및 병동 간 협력이 마취과와 수술실에서 가장 긍정적이었다는 Kim[2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수술실은 침습적 의료행위와 위험장비, 기구 사용으로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수술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수술실 간호사의 안전관리활동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4.28점으로 3.33점인 환자안전인식에 비하면 안전관리활동 수행 정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그 이유로 연구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3차 종합병원이 병원 인증 평가를 준비하고 있던 시기이므로 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조사도구가 인증평가 기준항목과 수술간호 지침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간호사들이 자신의 실제 수행보다 과다하게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자기기입식이 아닌 참여적 관찰이나 표본감시 형태의 방법론을 활용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관리활동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인식의 하위영역이 안전관리활동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중환자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et al.[27]의 연구와 군병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Hwang et al.[2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환자안전관리활동의 실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중재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인식 중 가장 점수가 낮았던 부서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부족한 간호 인력 충원을 통한 적정량의 업무 분담과 적정 근무시간이 준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서 내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 특히 환자안전인식 향상을 위한 직원 간의 개방적인 논의 및 인증평가 준비 때와 같은 환자안

전에 관한 병원지원과 주기적인 교육, 평가기준에 맞는 간호업무의 표준화가 안전관리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수술실 간호사의 안전관리활동 수행 정도를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여 실제 수행 정도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1] J. E. Kim, K. E. An, S. H. Yun, "Nurses Perception of the Hospital Environment and Communication Process related to Patient Safety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edical Informatics*, vol. 10, no. 1, pp. 130-135, 2004.
- [2] J. Jung, Y. J. Seo, E. W. Nam, "Factors Affect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t Nursing Divisions of Two University Hospital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vol. 11, no. 1, pp. 91-109, 2006.
- [3]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Standard of healthcare accreditation, Available From http://www.koiha.kr/member/kr/board/establish/establish_BoardList.do (accessed Mar., 29, 2016)
- [4] J. S. No, Patients who do not need dead are annually dying 40,000, Available From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94> (accessed Mar., 29, 2016)
- [5] E. H. Kim, H. J. Kim, E. J. Bae, K. A. Yang, J. H. Yun, Y. M. Lee, S. G. Lee, Y. Y. Jung, B. Yu, S. I. Lee,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in the Hospital" Spring Training of Korean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Available From: http://www.kosqua.net/contest_data/board_list_01.asp
- [6] Institute of Medicine of the National Academies. To Erro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 Available From: <http://iom.edu/Reports/1999/To-Err-is-Human-Building-A-Safer-Health-System.asp>
- [7]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Improving Patient care, 2011. Available From: <http://www.npsa.nhs.uk/corporate/>
- [8]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1, 32-35, 2007. Available From: <http://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portSmallView.do?seq=1&tseq=204 &sseq=591&gbn=B&typeCd=N>
- [9] K. H. Lee, Y. S. Shin, H. K. Park, J. O. Park, I. S. Seung, "The Influence of the Awareness of Patient Safety Culture on Safety Care Activities among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7, no. 2, pp. 204-214, 2011.
-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Safe surgery saves lives: The second global patient safety challenge, 2008. Available From:

<http://www.who.int/patientsafety/safesurgery/en/index.html>

- [11]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Consumer damage relief and case book in 2010. Available From http://www.kca.go.kr/brd/m_377/list.do
- [12] M. H. Nam, S. H. Kang, "The Cognition Level on the Patient Safety and Safe Nursing Activities among Hospital Nurses in Busa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28, pp. 197-221, 2010.
- [13] S. J. Park, J. Y. Kang, Y. O. Lee, "A Study on Hospital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are Activity",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vol. 5, no. 1, pp. 44-55, 2012.
- [14] H. Y. Yang, A Study on the Effect of Perception of Hospital Nurses Toward the Patient Safety Culture on the Safety Nursing Activity-Focusing on Suncheon Reg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009.
- [15] Y. J. Lee, Patient Safety Culture and Management Activities Perceived by Hospital Nurses, Master thesis, Eulji University. 2011.
- [16] J. H. Choi, K. M. Lee, M. A. Lee, "Relationship between Hospital Nurses' Perceived Patient Safety Culture and Their Safety Care Activitie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 of Nursing*, vol. 17, no. 1, pp. 64-72, 2010.
- [17] A. R. Choi, Nurses'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Management Activity in Intensive Care Units,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2010.
- [18] F. Faul, E. Erdfelder, A. Lang, A. Buchner,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39, pp. 175-191, 2007. DOI: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19] J. S. Kim, J. S. Kim, "Importance awareness and Compliance on Patient Safety for Nurses Working in Operating Room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12, pp. 5748-5758,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12.5748>
- [20] Agency for Health Research and Quality: Hospital Survey on Patient Safety, 2004. Available From: <http://www.ahrq.gov/professionals/quality-patient-safety/patientsafetyculture/resources/index.html>
- [21]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Guidelines for Hospital Evaluation Program, Available From: <http://www.khidi.or.kr/board/view?linkId=102285&menuId=MENU00099>
- [22] E. O. Lee, N. Y. Lim, H. A. Park, I. S. Lee, J. I. Kim, J. I. Bae, S. M. Lee, "Nursing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Seoul:Soomoonsa, 2009.
- [23] E. Y. Yu, S. J. Jung, "Analysis of Doctors' Cognition of Patient Safety at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6, pp. 2607-2616, 2012.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2.13.6.2607>
- [24] Y. R. Yeun, "The Impact of Healthcare Accrediatin on Patient Safety and Quality,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bout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4, pp. 1820-1829,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4.1820>

- [25] S. K. Kim, H. J. Lee, E. G. Oh, "Perceived Level and Associated Factors of Patient Safety Culture among Health Care Providers in an Operating Room",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6, no. 2, pp. 57-67, 2010.
- [26] J. E. Kim, M. A. Kang, K. E. An, Y. H. Sung, "A Study of Nurse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related to Hospital Culture and Reports of Medical Errors",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3, no. 3, pp. 169-179, 2007.
- [27] J. M. Lee, S. J. Hong, M. H. Park,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and safety care activity among ICU nurses", *Crisisonomy*, vol. 9, no. 11, pp. 273-29. 2013
- [28] J. S. Hwang, S. Y. Lee, Y. J. Jeon, H. O. Lee, Y. N. Kwak, J. O. Lee, "A descriptive study of military nurses' perception on patient safety culture and their performance on patient safety nursing",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vol. 32, no. 1, pp. 92-104.

박 소 정(So-Jeong Park)

[정회원]



- 2011년 6월 : 영남대학교 환경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1999년 11월 ~ 현재 :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간호사

<관심분야>
보건학, 질병예방

최 은 희(Eun-Hee Choi)

[정회원]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졸업(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 질병예방

이 경 수(Kyeong-Soo Lee)

[정회원]



- 1990년 2월 : 영남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인턴
- 1993년 2월 : 영남대학교병원 예방의학교실 레지던트
- 2011년 1월 : 영남대학교 대학원 및 환경보건대학원 주임교수 겸 학과장
- 2013년 5월 ~ 현재 : 영남대학교 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장

<관심분야>
예방의학

정 귀 애(Kwi-Ae Chung)

[정회원]



- 1995년 2월 : 경북대학교 학과 졸업(박사)
- 1986년 9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모성간호학, 질병예방